

# 만인의사의 간절했던 이야기

남원시립국악단, 내일 '창극 정유년 남원성 전투' 공연  
소설가 윤영근 원작에 최정주 작가의 대본 토대로 제작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립국악단이 주관하는 창극 '정유년 남원성 전투'가 내일 저녁 7시 30분과 16일 오후 3시 2차례에 걸쳐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 공연은 지난해 연말 초연한 이래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재공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올해 작품의 완성도를 업그레이드시켜 재공연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창극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만인의사의 처절하고 간절했던 이야기를 진한 판소리로 풀어낸 창작창극으로 소설가 윤영근 작품의 원작에 최정주작가의 대본을 토대로 제작됐다.

특히, 이 공연은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남원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고 후세에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작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 공연보다 업그레이드 된

이번 창극은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음악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정유년 남원의 이야기를 신분을 초월한 정금과 흥도의 사랑, 남원 군사들과 명나라 총병 양원의 갈등,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 도공들의 아픔으로 풀어낸 부분도 공연의 백미로 작용한다.

공연예약은 전화(063-620-5681) 또는 남원시립국악단 카카오톡 채널 1:1대화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6167) 또는 남원시립국악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namwonguka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성 전투는 남원의 군사·민간인 만 명이 왜군 6만명과 싸워 접돌했으나, 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전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와 남원시립국악단은 이번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민복사 저포기, 황산대첩, 김 삼의당, 황진 장군 등 남원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 제작해 남원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샌드아트로 보는 음악극 '호두까기 인형' 무료 공연

18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샌드아트로 보는 음악극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무료로 개최된다.

부안군이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펼쳐지는 공연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인 클나 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와 샌드아트 입사단이 함께 만든 콜라보 작품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와 샌드아트를 함께 선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샌드아트 특유의 스토리텔링 효과와 시각적 내용 표현이 아이들의 상상력 향상에 좋은 경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고인돌박물관에 전시된 비격진천뢰.

## "선사시대 인류의 기술, 직접 체험해요"

16일 고창 고인돌유적 죽림선사마을 일원서 고인돌 문화제 개최  
선사시대 석기 제작 체험·가을밤 죽림선사마을 토크어바웃 등 다채

고창군이 주최하고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고인돌 문화제 가 오는 16~17일 고창군 고인돌유적 죽림선사마을에서 열린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에서는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의 문화유산 활용으로 선사시대 돌과 관련된 인류의 기술 진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사시대 돌 기술' 프로그램에선 뎀석기(구석기)·간석기(청동기) 제작, 선사시대 목공 사용, 선사시대 정육점을 운영한다.

선사시대 정육점 운영 수익금은 고창군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또 고창 고인돌유적의 현대적 의미를 해외·국내 사례와 비교하는 강연, 관광객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 '가을밤 죽림선사마을 토크어바웃'이 진행된다.

특히 깊어가는 가을 운곡습지 산책길을 걷는 '운곡습지생태길 걷기'와 운곡탐사르습지 주변 6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운곡습지의 역사와 옛 추억을 되돌아보는 '생태관광 페스티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20주



'2019 고인돌 문화제'가 오는 16~17일 고창군 고인돌유적 죽림선사마을에서 열린다.

년을 맞아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고창 고인돌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며 "돌로 만든 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을 이해하고 과거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내일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음성 출토 비격진천뢰 학술세미나 개최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음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내일 오후 1시에 고창고인돌박물관(인체영상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음성 비격진천뢰의 발굴과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노미선 기획연구과장(호남문화재연구원)이 무장읍성의 궁고와 훈련정, 비격진천뢰의 조사과정과 출토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국립진주박물관 김해술, 허일권 학예연구사가 고창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11점에 대한 보존처리 과정과 그간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처음 확인된 뚜껑 등 배일 속에 있었던 비격진천뢰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이어 채연석 교수(과학교술연합대학원대학

교)의 '임진왜란에 사용된 완구와 진천뢰의 구조연구', 노영구 교수(국방대학교)의 '임진왜란 전후 조선의 화약무기 개발과 기술발전'에 관한 주제로 조선시대 무기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고창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를 중심으로 최근 분석 성과와 그간 연구자료 등을 비교 검토해 지속적으로 조선시대 무기 기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해 조선의 최첨단 비밀병기이자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가 고창군 무장읍성에서 11점이나 출토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며 "무장읍성과 함께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비격진천뢰의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